

## 빗살무늬토기문화의 지역적 전개

- 중서부지역과 강원영동지역을 대상으로 -

林尙澤\*

### 차 례

- I. 서 론
- II. 강원 영동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와 지경동
- III. 중서부지역의 신석기토기 문화
- IV. 지경동의 시간적 위치 및 빗살무늬토기의 지역적 전개
- V. 결 론

### I. 서 론

강원영동지역의 신석기문화는 오산리유적의 발굴을 통해 그 면모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(임효재外 1984; 김원용外 1985; 임효재外 1988) 오산리 이외의 유적조사가 미진했던 관계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. 최근 문암리, 지경동, 가평리 등의 발굴조사를 통해 강원영동지역의 토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(국립문화재연구소 1998,1999; 고동순 1999). 오산리유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강원영동지역 신석기토기문화가 용기문토기-오산리식평저토기-빗살무늬토기의 순으로 전개된다는 상대편년의 큰 틀은 확인되었지만(김장석 1991; 河仁秀 1995) 각 토기문화의 관계 및 개별토기문화 내의 양상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. 최근 오산리식평저토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(河仁秀 1995; 田中聰一 2000) 빗살무늬토기에 대해서는 절대자료의 부족 속에서 연구의 진전이 힘든 상황이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지경동유적의 발굴은 강원영동지역의 빗살무늬토기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강원영동지역의 빗살무늬토기문화의 계통과 편년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. 이하에서는 지경동유적을 중심으로

\* 서울대학교 박물관 학예사